


<div>교훈 : 성실</div> 	가 정 통 신 문		제2021-100호
			담당 : 학생인권부
	2021학년도 말라리아 예방 안내	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 ☎ (교무실) 031-365-8200 ☎ (행정실) 031-365-821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름을 알리는 6월을 맞이하여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급성 열성질환으로 우리나라는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 (5~10월)에 주로 인천, 경기.강원 북부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안내 하오니 건강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발생지역: 인천(강화 등), 경기(파주, 김포, 고양, 연천 등) 및 강원(철원, 고성 등) 북부

◆ 말라리아 주요증상

- ▶ 말라리아 초기 증상(발열, 오한, 두통 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기몸살과 유사하고 최근에는 초기 증상이 경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 가벼운 감기몸살이나 냉방병으로 여겨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고 나온 줄 알았는데, 며칠 후 다시 증상이 심해져 뒤늦게 말라리아로 진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 말라리아는 잠복기가 다양(7일~12개월)하여 모기에 물린 후 증상이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음해에 발병하기도 합니다.

◆ 말라리아 진료 및 검사

- ▶ 말라리아 다발생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모기에 물린 후 발열,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감기몸살 시 말라리아도 반드시 의심하여 신속한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진단이 늦어지면 모기가 나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물어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 말라리아는 신속진단검사로 15분 만에 감염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말라리아 예방수칙

- ▶ (야간활동 주의)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야간(밤 10시~새벽 4시)에 활발하게 활동하며, 어두운 색의 옷을 입거나 땀을 흘리는 사람들을 주로 물고 있습니다. 다발생지역에서는 야간활동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 (주변 환경관리) 실내로 모기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설치된 방충망에 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세요.
 - 살충제(모기향, 에어로졸 등)는 모기 제거에 도움이 되며, 밀폐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말라리아란?

- 말라리아 원충(병원체)에 감염된 모기(매개체)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급성열성질환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모기는 얼룩날개모기속에 속하는 암컷 모기로
- 일반모기와 달리 앉아있을 때 공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비행시 '윙'소리가 나지 않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말라리아 매개 모기]



[일반모기]

우리나라는 말라리아 발생국가입니다

말라리아 환자 발생 현황

연도	국내발생 환자 수	해외유입 환자 수
2016년	602	71
2017년	436	79
2018년	501	75
2019년	485	74
2020년	356	29

국내발생 연간 500명 내외
해외유입 연간 80명 이내

국내 주요 발생 지역



말라리아 감염예방 6가지만 실천하세요



말라리아 예방수칙 여섯가지

1 야간활동 자제



- 말라리아 매개모기는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므로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3 밝은색의 긴옷 착용



- 야간·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옷을 입고

5 모기 서식처 제거



- 주 1회 집 주변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인공용기, 웅덩이 등 고인 물을 제거하고

2 운동후엔 샤워



- 운동 시 땀으로 모기가 유인되므로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하세요

4 기피제와 살충제 사용



- 상처나 얼굴주변을 피해 기피제를 사용하세요

6 방충망 정비



- 모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취침 전 방충망을 점검하고 모기장을 사용해주세요

2021. 6. 10.

시 흥 가 온 중 학 교 장(직인 생략)